

‘캄보디아 단비천사’ 된 광주 고교생

석산고 출신 이호진군 등 10명 프놈펜에 우물 25개 기증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비록 학생들이 용돈을 쪼개 모은 돈이지만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태산보다 더 값진 돈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더 모아 앞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모은 용돈 쾌척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캄보디아 프놈펜 주민들에게 ‘생명의 우물’을 2년째 기증하고 있어 화제다. 이 사업을 앞장서 지원하고 있는 이호진(19·광주 석산고 졸업)군은 “우물 지원 사업이 많이 알려져 지구촌 이웃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008년 이장원(서석고)·한재원(인성고)·이성원(동성고) 등 3명의 학생과 석산고 학부모 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캄보디아 주민들이 불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우물을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은 그중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캄보디아 곳곳의 물웅덩이에서 아이들

이 수영하는데 대부분의 캄보디아 국민은 그 웅덩이 물로 식기도 세탁하고 자기 몸도 닦는다. 식수를 제외한 모든 생활용수가 바로 웅덩이 물인 셈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9개의 우물(200여만원 상당)을 현지 한인 교민 봉사단을 통해 기증했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용돈을 인연가는 불우이웃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때마침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증한 거예요. 우물 한 개면 4~5가구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돼지 10마리 기증 자활 도와

이후 이들의 뜻에 동참하는 많은 학생들의 지원도 이어져 현재까지 25개의 우물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이군 등이 돼지 10마리를 캄보디아 주민들에 기증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기증한 우물에는 이군 등 기증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또 이들의 선행은 캄보디아 현지 신문에 알려져 기사화되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생명의 우물’을 지원하고 있는 이호진(맨 오른쪽)군이 지난해 전국청소년 행복나눔 봉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 이수 김장훈(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 했다. 이군은 지난해 전국청소년 행복나눔 봉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생활속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 인하대학교 나노시스템 공학부에 입학한 이후에도 교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군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해외 이웃들에게도 계속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며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진로 참이슬 봉사단’ 무등산 환경정화운동



‘진로 참이슬 봉사단’이 최근 무등산 중머리재 인근에서 환경 정화운동을 펼친 뒤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진로 광주지점 제공)

KCTV ‘DV봉사단’ 저소득가정 봉사활동



KCTV광주방송(대표이사 최홍훈) ‘DV봉사단’(단장 이상훈)은 최근 광주시 동구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페인트 칠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KCTV광주방송 제공)

농협 전남본부 ‘Level-up 주말 아카데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조합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 Level-up 주말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신안기업 대표 학산면 노인회에 금일봉



신안기업 김영민(63·왼쪽) 대표는 최근 영암군 학산면 일일 명예연장으로 근무한 뒤 학산면 노인회(회장 김길환)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다문화 자녀에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조선대 ‘호치민 세종어학당’ 수료 켄 티 흐영 휘엔씨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인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 켄 티 흐영 휘엔(27)씨는 최근 생애 두 번째 학사모를 쓴 직후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휘엔씨는 조선대가 국립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내에 설립한 ‘세종한국어학당(학당장 안경환 교수·이하 세종학당)’의 한국어 고급반 1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이날 오전 수료식이 열린 호찌민 인사대에서 조선대 이상열 부총장으로 부터 장학금을 수여받은 휘엔씨는 수료생 28명을 대표해 한국어학당 졸업소감을 발표하며 ‘제 2의 삶’을 떠날 예정이다.

휘엔씨는 “아이를 보살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밤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며 “한국어를 좀 더 공부해서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가르



켄 티 흐영 휘엔씨가 수료식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 (조선대 제공)

치고 싶다”고 말했다. 불과 한 해 전 순둥이 새댁이었던 그녀가 장학금까지 거머쥔 ‘역적녀’로 변하게 된 것은 15개월 된 아들 때문이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휘엔씨는 한국계 제약업체 베트남지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남편 김태

식씨(42)를 만나 2008년 결혼했다. 서툰지만 베트남어로 대화가 가능했기에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사립사립을 다니며 태어나면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던 휘엔씨는 자신과 친정 식구들이 아기에게 베트남어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산후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세종학당의 문을 두드렸다. 세종학당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기관보다 학비가 비싼 반면, 믿을 수 있는 한국인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한국어에 자신이 생긴 뒤, 지난해 추석에는 경북 경주 시역을 찾았다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기도 했다. 이제는 남편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함께 한국으로 가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이달의 새농민상 4명 선정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4월 수상자로 신종연·양덕경(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양승원·김선란(장흥군 안양면 지천리)씨 부부가 선정됐다.

제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종연(56)씨 부부는 지난 1989년 귀농한 뒤 두름과 6년산 산양삼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산도 농업인으로서 농촌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신씨는 한국

임업후계자 전남지회장, 산림복합경영인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큰샘목장을 경영하는 양승원(45)씨 부부는 조음과 검사를 통한 쇠고기 육질관리 시스템을 정착,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축산기술 향상을 통해 고소득 축산에 기여했다. 양씨는 주민자치회, 장학회 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영원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전남대학교
◇ 승진(6급) ▲총무과 김영심 ◇ 전보(6급) ▲경리과 최광수 문창현 ▲교육지원과 서명원 ▲학생지원과 정영순 ▲스포츠센터 행정실 이영덕 ▲공과대학 행정실 기민수 ▲의과대학 행정실 김영심 ▲인문대학 행정실 이재용 ◇ 전보(7급) ▲경리과 최준미 ▲교육지원과 김민정 엄명희 ▲기획조정과 안영선 ▲산학연구과 김광수 ▲입학관리과 손봉호 ▲총무과 김명호 ▲학사관리과 유

완이 ▲학생지원과 전국석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이윤미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장 김영준 ▲정부통신공학부 학부장 박창수 ▲신소재공학부 조병기 ▲기전공학부 왕세명 ▲환경공학부 김경우 ▲생명과학부 박우진 ▲나노공학연구실장 정문석 ▲기획처 예산팀장 기성근 ▲행정처 총무팀장 전상훈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조정부·박양순씨 차남 대일군 김재홍(전남도 기업유치과장)·최인숙씨 차녀 민지양=10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리초컨벤션 웨딩홀(2층 자스민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경주김씨 재광 이사 월례회의(회장 김두석)=5일(월) 오후 6시 흥백(광주 동구 대인동 154-1) 228-3382, 010-6455-6296.
▲동래정씨 광주전남 중친회(회

장 정한영) 부산 화지 시조 선산 한식향사 참례=6일(화) 오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알림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 등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모집

▲오씨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정중·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광주주부 아마추어무선(HAM) 입문 무료강좌=10일(토) 오후 2시 북구 신안동 730-3번지 3층. 062-512-5973.
▲풋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팀 선발=발로 불을 차 흙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진원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장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차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부음

▲안중필씨 별세 현민·윤진씨 부친상=발인 7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장진석씨 별세 재영(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재운(인천공항공립국관리사무소)·재관(한미파스스)·재욱(안양교도소)씨 부친상=발인 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중규씨 별세 태봉·태형·기수(농협중앙회 부장)·태호(인천공항세관)·승호·태순·길례·삼례·희용·희순씨 부친상=발인 6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최영순씨 별세 이형철·형중·형남·형자·형순·정자·복자·형숙·형

미씨 모친상=발인 5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동하씨 별세 관용·우관·영관·(기아자동차)·재관·도순씨 부친상=발인 5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강일성씨 별세 승호·주호·은영씨 부친상=발인 5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순애씨 별세 구두중(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 차장)·두형씨 모친상=발인 5일(월) 여수 호남장례식장 1호실. 061-641-0404.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조영순 (여: 78세)

유족: 대수영/유승재/유정민/이경주

호선	호실 101호
발인	04월 05일
장지	영락공원

故 김준자님 (여: 85세)

유족: 임희영/유삼래/유정민/유정민/유정민

호선	복합301호
발인	04월 05일
장지	화산묘역 선영

심기교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인대중앙상조가장

가임문의 1688-3740

한대중앙상조 권속국 노수현